

## 1-23. 감나무에 발생하는 주머니까지벌레(Hemiptera: Eriococcidae)의 분류학적 재검토

권기면, 한만중, 이승환, 이용현<sup>1</sup>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해충과, <sup>1</sup>국립식물검역소 영남지소

한국의 주머니까지벌레과(Eriococcidae)는 백(1978)에 의해 3종이 기록되었고, 한국곤충명집(1994)에는 6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최근 백(2000)에 의해 9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중 국내에서 감나무(*Diospyros kaki* Thunb.)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종은 백(1978)과 권 등(1995)이 주머니까지벌레(*Eriococcus lagerstroeniae* Kuwana)로 기록하여 왔으며, 그 기주 식물로는 석류나무, 배롱나무, 팽나무, 예덕나무, 감나무, 회양목이 보고되어 있다(백, 1978), 또한 지금까지 국내의 각종 연구보고서나 대학논문집에도 주머니까지벌레(*E. lagerstroeniae*)가 감나무의 문제 해충으로 보고되어 왔다.

백(1978)의 소장 표본과 1997~ 2001년에 김해 등 전국 13개 시군의 감나무 재배지에서 채집한 주머니까지벌레의 표본을 동정한 결과, 모두 *Asiacornococcus kaki* (Kuwana)(감나무주머니까지벌레; 신칭)로 확인되었으며, 주머니까지벌레(*E. lagerstroeniae*)는 감나무에서는 채집되지 않았다.

감나무주머니까지벌레는 1930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감의 검역 과정에서 검출된 것을 일본인 Kuwana(1931)가 처음으로 보고하였는데, 현재 일본에는 분포하지 않으며, 중국의 하북, 하남, 산둥, 길림, 산서, 광둥, 광서, 귀주, 사천, 티벳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Wang, 1982).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감나무에서 문제해충으로 알려진 주머니까지벌레를 감나무주머니까지벌레(*A. kaki*)로 정정 보고하며, 정확한 종 동정을 위해 주머니까지벌레와 감나무주머니까지벌레 2종에 대한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림을 그렸다.

*Asiacornococcus*속은 한국 미기록 속으로, 더듬이는 3~ 5마디이고, 등면의 원뿔형 가시털이 짧고 굵으며, 밑조각에 원뿔형 가시털이 1개 있고, 센털이 2개가 있으며(Tang & Hao, 1995), *Eriococcus* 속은 더듬이가 7마디이고, 등면의 원뿔형 가시털이 가늘고 길며, 밑조각에는 원뿔형 가시털이 3개로 *Asiacornococcus* 속과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Targioni-Tozzetti, 1869).

*Asiacornococcus* 속은 세계에 3종(*A. exiguus* Maskell, *A. japonicus* (Kuwana), 그리고 *A. kaki*)이 기록되어 있는데, *A. exiguus*는 노란색의 느슨한 주머니가 몸을 덮고 있고, 암컷 성충은 갈황색이고, *A. japonicus*는 더듬이가 5마디이고, 등면의 원뿔형 가시털이 *A. kaki* 보다 훨씬 적다. *A. kaki*는 더듬이가 3마디이고, 등면에 짧고 굵은 가시털이 많이 있고, 몸은 적갈색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